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읽기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 장18 절부터 보겠습니다. 문장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성경 본문을 띄어 드렸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그래서 최초 인류의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책임을 묻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다 먹었느냐 묻자 아담은, 앞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여자 그가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인간성이 보입니다. 발뺌을 하는거죠. 여자는 뱀이 나를 꾀므로 먹었나 이렇게 또 핑계를 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책임을 묻고 두 번째는 여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17절부터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17절부터 새롭게 해야되는데 지난 시간에 17절 설명하다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끊었습니다. 아담에게 그 책임이 더 이어집니다. 기네요 여자에게 물은 책임보다 아담에게 물은 책임이 더 큼니다. 책임이라기보다 징벌이죠. 타락으로 인한 아담과 이브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아담에게 내린 징벌이 더 많습니다. 아담은 자기 잘못 하나도 없다. 당신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가 과일을 갖다 주고 먹으라 하니까 먹었을 뿐이다라고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브보다 아담에게 내린 징벌이 더 많고 큼니다.

이렇죠.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거기 17절부터 시작하니까 좀 보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땅이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하네요. 아담은 인간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예요. 땅은 정말 책임이 없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음 대단하죠. 창세기자의 통찰이 날카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21세기 현대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땅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인간에 의해서 이 땅이 생명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죠. 그게 뭔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이제 가장 단적인 건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땅이나 땅 같은데 식물이 자라기 힘든 거죠. 사람으로 인해서 이 자연까지 저주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단어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세라고 말이죠. 인간세. 지질학에서 그렇게 지구의 연대를 말한 겁니다. 무슨 세 무슨 세 무슨 세. 제가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홍적세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그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생물학과 지질학에서 얘기하는 지구와 거기 살았던 생명들을 분류하는 거거든요. 뭐가 중심이 되어서 생명과 땅이 이렇게 지내 온 것 시기를 얘기합니다.. 무슨 세 무슨 세 무슨 세요. 지금까지는 아 제가 그거를 나중에 좀 더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딱 머리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 단어들이요.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건 아는데 그게 딱 떨어지는 단어를 기억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무슨 세 무슨 세 무슨 이렇게 쪽 왔어요. 그래서 몇 1000년 동안은 어떤 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학자들이 이제 좀 새로운 세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 세. 인간에 의해서 이 지구가 변화를 겪게 되는 때가 됐다 이거죠. 언제부터 얘기 하든가 있는데 최근입니다. 그 이후의 시대를 인간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기후변화가 아주 단순한 예죠. 인간의 과학발전 자연에 대한 간섭 직간접적인 간섭 그리고 지배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지구가 변화를 겪는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지구의 변화의 생명체가 의존해서 그런데 뭐 빙하기도 있었잖아요. 간빙기이라고 하죠 지금요. 그거는 그 세 지금 얘기한 세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르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 전문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분류한 책을 보면 단어들이 기억나는데 분명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지구가 변화를 겪는 세상이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이 문장이 심각하네요. 저렇게 벌써 그 고대에 그 어떤 영성과 인간과 땅의 관계를 보고 있네요.

그리고 18절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가 먹을 것은 채소인즉”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먹어야 할 것은 채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본다면 채식주의가 맞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좀 했을 겁니다. 아 창조 이야기 나올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창세기 앞대목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채식주의가 옳다 육식도 타당하다 아니다. 그런 말을 꺼낼 순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채소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서 아 채식주의 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비건 이라고 하죠. 그 기억이 난 겁니다. 어떨까요? 인류의 미래에는 채식으로 변경될까요? 아니면 역시 또 병행할까요? 아니면 육식으로 더 많이 가게 될까요. 저는 아무건 잘 모르겠습니다. 채식주의에 무조건 동의 하지도 않습니다. 그 육식을 좋아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에스키모는 뭐 육식을 해야죠 뭐 물개나 뭐 그런 것들을 잡아서 먹고 살아야죠. 어부들도 다 그것도 육식이죠. 물고기들

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유목민들은 육식을 한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은 에스키모나 유목민이나 어부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육식을 즐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그 긴 얘기 제가 하지 않겠어요. 이거 지금 성경 공부의 핵심이 아닌데 자꾸만 여기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고기를 많이 먹으려고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옥수수 밀 이런 걸 많이 줘서 소의 먹이를 삼고 그 소를 인간이 먹는다는 거죠.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곡식이 들어갑니까? 네 목축을 하는 사람이나 유목민들이나 에스키모들이나 어부들은 뭐 그걸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생존의 문제였으니까 육식을 한 것 뿐입니다. 근데 지금은 생존과 관계 없이 오히려 먹을거리에 균형이 깨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육식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참 육식을 많이 한다그러죠.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유명한 문장이 나오니

다.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간단한 문장이지만 준엄하죠. 흠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진실입니다.

우리 몸은 흠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흠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옳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없으면 영혼도 없는 거예요. 영육이 결합 될 때만 인간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닌 거죠. 그건 복잡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걸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영육이원론은 기독교신앙에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그 영육 이원론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육체는 죽어서 흠이 되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 없어지는 거냐 죽으면 흠으로 들어가는 건 육체가 흠으로 되는 건 분명 하니까 육체가 없이는 영혼만 갖고 인간이 될 수 없으니 죽음 이후에 우리 미래는 전혀 없다는 말이나 그런 말이 가능하죠.

죽으면 모든 게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도 정확한 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 좀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는다 산다 영생을 얻는다 하늘나라로 간다 하나님 나라다 뭐 이런 이러한 종교적 단어들을 일상적인 거로만 낱말 뜻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언어 성경 언어들은 사전으로 낱말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을 실제로 믿는다면 영혼도 죽어야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영혼불멸이라고 한다면 즉 육체는 죽어서 흠이 되고 영혼은 죽지 않고 어디론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부활 신앙하고 충돌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영육이원론 영혼불멸설 비슷한 얘기거든요. 영육이원론과 영혼불멸설 이거는 같이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성서적이라기보다 플라톤 사상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플라톤 사상의 근간 영육이원론과 영혼불멸설이 그리스도의 신앙에 한 부분으

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과 영혼 불멸에서는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돌을 감수하고 기독교는 그 두가지를 그대로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뭔가 깨닫히지가 않아요. 깔끔하지가 않아요. 충돌되는데 그게 그대로 있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왜같이 있지 그런 반론이 제기됩니다.

그거는 창조 이야기와 타락 이야기하고 또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뱀을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 이렇게 된 책임을 왜 인간에게 묻냐 하나님이 잘못이지 이런 반론이 가능한 겁니다. 뱀의 기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런 모순되는 주장들이 성서와 기독교 신앙 안에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억지로 조화롭게 조화시키려고 억지로 꾸며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뭐 이렇게 신앙이 뭘 꾸며 내나요. 그런건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는 대목들도 그리스도교 그 역사에서 그 문제를 붙들고 있었던 신학자와 영성가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이유는 궁극적인 것이 여전히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눈에 보듯이 실증적으로 확인하거나 그런 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도 옳고 영혼 불멸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서로 모순되는 건데 어느 하나를 제거할 순 없어요. 아 그 얘긴 여기서는 그만하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바울 식으로 얘기하면 잠에 떨어지는 겁니다. 잠자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로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에 어머니가 됨이니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 생명은 어머니에게서 나온다는 뜻이겠죠. 아담보다는 하와 그러니까 이브라고도 부르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 보통 얘기하는데 하와라고 했죠. 차이가 어딘지 왜 생각이 안 나죠? 제가 이걸 알았었는데 생각이 딱 나지 않습니다. 하와와 이브의 차이 말이죠. 나이 70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공부를 게을리해서 그런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희미해져 가요. 그걸 제가 알았었는데 하와 보통 우리가 아담과 이브 얘기 했잖아요. 하와 그냥 제가 어떤 근거 없이 얘기한다면 하와는 히브리 발음이고 이브는 영어식 발음이 아닐까요?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하와를 불렀으니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 지금 여호와와 하나님이 계속같이 묶고 있죠. 묶이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이하 상당 부분은 하나님으로만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호와, 이는 야웨라는 하나님 호칭입니다. 엘로힘으로 부르는 무리가 있었고 야웨라고 부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전통에서 신앙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쪽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남아 있다가 그걸 문서화 하면서 어떤 누군가 편집해서 글을 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니” 모두 뜻밖이네요. 위에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하체를 가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이브가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특별한 뜻이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나뭇잎으로 엮어서 하체를 가린다면 좀 불편하죠. 금방 금방 상할 수도 있고요. 가죽 옷은 탄탄하죠.

근데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건 동물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뜻밖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죠.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곱게 생각해서 이뻐하셔서 좋은 옷을 입혔다 그 정도로 보면 되긴 하겠습니다. 굳이 가죽옷이라 가죽옷을 입혔다고 저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뭐요 위에서 나온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는 식으로 살아도 되잖아요.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또 죽이는 거 아니예요? 굳이 가죽옷을 입힐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서 기자들이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예요. 넘어 갑시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보라. 성경에 이런 보라라는 표현을 자주 나와요. 강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를 따 먹고 영생할까하시고” 재밌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일인칭 복수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지 궁금하긴 하죠. 근데 어떤 이들은 저게 벌써삼위 일체를 가리킨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당시 고대인들의 글쓰기 관행이었을 겁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참 일체 신이 여럿이다 그게 아니라 글쓰기 방식으로 저런 1인칭 복수를 썼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 선악을 아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면서 인간이 영생하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뭐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저런 문장이 뭘 가리키는지 깊이 생각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를 아니라 그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들을 내보내요. 아담과 이브를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요. 근원이 된 땅을 갈기 하시니라. 이게 실락원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노동해야될 현실이 인간 앞에 벌어진 겁니다. 그 근원이 된 땅, 이 땅은 인간의 근원입니다. 거기서 왔구요 거기에서 왔고 거기서 돌아가야 되고요. 그 땅을 농사 지어 되니까 땅을 경운하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수확해 거둬 드리고 하는 거예요. 땅을 간다. 땅을 갈게 하시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땅을 가는 일은 하나님의 징벌처럼 보이죠. 전체를 보면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꼭 징벌만 아니죠. 에덴동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알던 그러한 단계로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놀고먹는 자리에서 실제로 자기 몸을 놀려서 농사짓고 땀을 흘리면서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 있어요.

24절. 이같이 그게 뭘 은총이냐 징벌이고 저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더 설명할 순 없습니다. 분명하려면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너무 복잡한 문제가 엉켜 있어서 거기까지만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럴 때 도로테 칠레라고 하는 여자신학자가 있었거든요.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도로테 칠레라고요. 그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아르바이텐 운트 리벤 아르바이트 노동이에요 운트 리벤 사랑이에요. 노동과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원 어느 수도원 전통이죠. 거기 뭐 전반적인 수도원이 다 그런 전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더 두드러지게 그런 전통이 있는 수도파가 있어요. 보라 옛 라보라 라구요 기도하라 그리고 노동하라. 근데 그걸 인간 삶의 근본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도로테 칠레와 수도원 전통 이런 걸 근거로 놓고 볼 때 이 땅을 갈고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산다고 하는 건 징벌이 아니라 은총이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룹은 어떤 천사의 무리들을 가리켜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영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생명 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막고 있습니다.

이거 이런 표현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극복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에덴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천사들 그룹 천사들과 불칼로 막아 두었으나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이를 수 없게 했으나 생명나무의 길에 이를 수 없게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 나무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뜻인지에는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